

임실, 맞춤형 재활치료 차량 운행

군 보건의료원, 지역 내 중증장애인 건강재활서비스 제공

임실군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재활치료를 돕기 위해 재활치료 차량을 본격 운영한다.

군 보건의료원은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재활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9000만원 상당의 특화 차량을 제작, 구입했다. 이 차량은 15인승 솔라티를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10인승 장애인 특화차량으로 개조한 것이다.

그동안 군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휠체어 리프트 등 기능이 보강된 특화 차량이 필요

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맞춤형 재활전문차량을 구입, 운행함에 따라 그 동안 이동이 어려워 재활치료를 받지 못한 장애인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이동하는데 제약이 많은 중증 장애인들에게 더 나은 건강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은 군은 기대하고 있다.

신규 특화 차량은 지난 달 16일부터 운행 중이며, 1일 2회로 나누어 주 4회에 걸쳐 운영된다.

군 보건의료원은 각 읍·면 협조를 얻어 재활치료 차량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신규 발굴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그동안 재활치료를 해야 하는 데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 분들이 많았는데 맞춤형 차량이 운행되어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 건강과 몸이 불편한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보건 정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흥영 기자



남원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제27회 흥부제 기간인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사랑의 광장 주차장에서 부각 무료체험과 시식 행사를 개최한다.

남원 흥부제 기간 부각 무료 체험

11일부터 13일까지 사랑의 광장 주차장서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에서는 제27회 흥부제 기간인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사랑의 광장 주차장에서 부각 무료체험과 시식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향토음식 관광상품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남원시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썩썩농부들(대표 박희숙)과 남원시부각협동조합(대표 김계식) 주축로 개최되며, 남원 향토음식인 부각을 지역 축제와 연계하는 형식을 취해 홍보효과를 더욱 부각시킬 계획이다.

행사장에서는 남원시부각협동조합 조합원들의 제품 전시 및 썩썩

농부들 회원의 농산물과 공예품을 전시·판매하고,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12일 12시에는 도시민 60명을 초청해 부각 비빔밥 퍼포먼스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총 5회의 무료 체험시간 동안에는 참가자들이 직접 부각을 튀겨볼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정인 농촌진흥과장은 "이번 부각체험행사 뿐 아니라 남원관광지를 연계한 맛 체험 관광투어를 개발, 도시민을 대상으로 남원시를 맛과 멋이 흐르는 관광 고장으로 부각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 금과면 체육관, 게이트볼장 준공식

지난 8일 주민 등 200여명 참석



순창 금과면 체육관인 체육관과 게이트볼장이 지난 8일 준공식을 가졌다.

순창 금과면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체육관과 게이트볼장이 지난 8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준공식에는 황숙주 군수를 비롯한 정성균 군의회 의장과 의원, 최영일 도의원, 내·외빈과 주민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준공식은 식전행사, 내·외빈소개, 감사패 전달, 경과보고, 축사, 테이퍼 커팅, 시설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식전행사는 금과면 아미농약단의 풍물놀이와 기쁜우리나타팀의 난타공연이 펼쳐져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과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번에 조성한 체육관과 게이트볼장은 면 소재지의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2013년 선정되어 총 사업비 57억 5천만원이 투입됐다.

2014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17년 세부설계를 완료하고, 2년여의 공사를 거쳐 뜻 깊은 준공식을 갖게 됐다.

전체 부지면적 8,149㎡로 체육관은 건축면적 1,561㎡(지상 1층) 규모에 배구 1면, 배드민턴 3면이 가능한 운동공간과 다양한 실내 행사가 가능한 무대와 음향설비, 샤워실, 창고 등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게이트볼장은 국제규격 경기장 1면과 휴게실, 화장실 등을 갖췄다.

부대시설로 주차장 77면과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태양광 시설 40kw를 설

치했다.

황숙주 군수는 축사를 통해 "그동안 금과면에는 운동을 하고 싶어도 적당한 시설이나 장소가 없어 순창읍 등 타지로 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많았다"면서 "이번 체육시설 완공으로 다양한 체육활동뿐만 아니라 대규모 면 단위 행사까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구로구 청소년과 문화교류 행사 가저

남원시는 지난 8일과 9일 서울구로구 청소년 25명을 초청해 남원지역 청소년 25명과 함께 하는 문화교류 교류행사를 가졌다.

이번 문화교류행사는 초등학교 5~6학년생을 대상으로 신청 및 학교별 추천을 통해 각 25명(총 50명)을 선발,

자매도시인 양 도시간 청소년들이 문화교류를 통해 우의를 다지고 지역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6월 남원시 청소년이 서울 구로구 방문에 이어 이번에는 구로구 청소년들이 남원을 방문한 것으로, 8일 청소년수련관에서 환영행사 및 레

크리에이션을 시작으로 광한루원, 함파우소리체험관, 항공우주천문대를 탐방하고 다음날 지리산노고단을 등반하여 남원의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남원의 대표 문화유산인 춘향전, 판소리, 지리산 등을 알리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전국유소년야구대회 성료... 유소년야구단 3위

제3회 순창 강천산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순창 팔덕다용도 보조구장 등 순창군 일원 10개 경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대한유소년야구연맹(회장 이상근)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 124개팀(유소년 115팀, 파파스 9팀)에서 총 3,000명 이상이 참가했다.

지난해 대회보다 27개팀 600명 이상이 순창군을 방문해 대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다. 순창을 방문한 선수와 임원, 학부모 등으로 인해 지역 상권에 활기가 돌았으며, 야구잡마를 입은 초등학생들로 넘쳐나 지역이 활력을 되찾아 지역주민들도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대회에서 도출된 미비점은 즉시 보완하여 내년 2월에 열리는 전국유소년야구대회, 전국중

학교야구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대회에 가장한 팔덕 다용도보조구장이 감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겨울철 전지훈련 장소로 벌써부터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또, 실내 야구연습장이 내년에 완공되면 순창군이 명실상부한 유소년야구 메카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대회는 6개 리그로 나눠 진행됐으며, 새싹리그에서는 아산시 유소년야구단이 우승을 차지했다. 참여팀이 많았던 꿈나무리그는 청룡과 백호로 나눠 진행됐다. 청룡,백호는 김포시유소년야구단이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10월 19일부터 2일간 순창군수배 호남, 충청권 유소년야구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 물방개 워터파크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 선정

올 여름 남원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물방개 워터파크가 지난 4일 2019 행정안전부 우수 어린이놀이시설로 선정되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어린이 놀이시설 7만5천여 곳 가운데 시·도·시·도 교육청에서 추천한 50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유지관리·운영실태, 아동발달과의 연계성, 안심디자인·설계, 공동체 활성화 등 5개 분야의 20개 항목을 평가해 우수시설을 선정했으며,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남원물방개 워터파크가 선정되어 인증서 및 인증판을 수여받는다.

남원시는 지난 6월 30일 개장에 9월 5일 운영을 종료한 물방개 워터파크는 주차문제, 주변 교통문제 등 작지않은 부족했던 점들을 보완, 올해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으면서 2개월 동안 2만2천여명(하루 평균 430명)이 방문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운영이 종료된 후에도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주변 환경과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좋은 모습으로 시민들을 맞이하기 위해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보건소 화상벌레 접촉 주의보

남원시보건소는 최근 남원에서 화상벌레(청딱지개미반날개)가 목격되고 신고됨에 따라 화상벌레 발견 시 절대 손으로 잡지 말고 도구와 모기살충제를 이용해 방제하고 의무소독시설 소독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벌레의 특징은 몸길이가 1~1.2cm이고 외형상 개미와 비슷하며 머리, 몸통, 가슴이 검정색과 황적색으로, 미주지역을 제외한 세계 전 지역의 들이나 습지에 서식하고 불빛에 모여드는 습성이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화상벌레는 접촉 시 화상과 같은 증상이 있으며, 몸에서 분비되는 '페레린'이라는 독성물질 때문에 피부에 닿으면 발적과 통증, 수포성 농포가 생기지만 약 2주 후면 자연 치유되고, 전용 퇴치약은 없지만 모기살충제로 효과를 볼 수 있다.

한편 박은순 보건지원과장은 "벌레에 물렸을 경우에는 상처 부위를 만지거나 긁지 말고 흐르는 물로 씻어내고 물집은 터뜨리지 않아야하고, 심할 경우에는 병원을 찾아 치료할 것"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명인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